

투데이 칼럼

북한 선전선동 현대화

지난 3월 북한의 KBM 시험 발사 영상이 큰 화제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출연을 했는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편집 기법이 등장했다.

선전선동의 최일선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선전 부문일꾼 강습회를 주관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기법은 꾸준히 변화해 왔다.

그중에서도 영상 미디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28일, 수십 대의 대형버스가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425 문화회관으로 들어갔다. 제1차 선전 부문 일꾼 강습회가 열린 것이다.

선전 분야 간부들은 6천 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꽉 채웠다. 북한은 이번 강습회의 목적이 사상사립의 "혁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간부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선전선동 방법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3월 25일 공개된 북한의 KBM 시험 발사 영상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김 위원장이 등장했다. 교차 편집, 각종 효과음까지 더해졌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화성 15형 발사 당시에는 이런 연출 기법은 선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이



정복규  
논설위원

번 KBM 발사 영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더 길게 노출 시켰다.

2017년엔 군 간부들과 기병하는 모습을 사진으로만 공개한 반면 이번에는 군인들과 활주로를 거니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보여줬다. 완전히 달라진 북한식 선전선동 영상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으로 나선 것이다.

북한의 선전선동은 미디어와 문화 예술, 교육 분야까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당의 정책과 최고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인 만큼 대중들의 호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70~80년대 '민족 가극'을 통해 대중 사상전을 펼쳤다. 1990년대에는 '희극'을, 2000년대에는 대중 음악과 대집단 체조로 주민들을 선동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부터는 TV 방송이 변화를 이끌면서 선전선의 중심에 섰다. 대형 디지털 화면이 배치된 화려한 스튜디오가 등장했고 한복 대신 양장을 입은 젊은 방송원들도 대거 투입됐다.

2017년 12월부터 모든 영상을 HD로 송출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방송 형식도 국제적 기준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연출 기법에서도 선전선동 기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방송원들이 스튜디오로 보도 형식을 탈피해 현장 전면에 뛰어들었다. 금강산의 산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선 취재 전 과정이 생생히 그려졌다. 심지어 취재를 위해 차량에서 잠을 청하는 방송원의 모습까지 공개했다.

'속보성'이 강화된 것도 북한 선전선동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에는 2020년 태풍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이 연이어 몰아닥쳤다. 이때 다수의 방송원들이 태풍 현장에 급파됐다.

당시 조선중앙TV는 사상 처음으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재난 방송을 이어갔다. 방송원들이 침수된 도로에 들어가거나, 들고 있던 우산이 뒤집어진 채 방송을 했다.

비바람에 흠뻑 젖은 방송원들 모습이 전파를 타며 북한 전역의 피해 상황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북한의 선전선동이 통제와 폐쇄적인 방식에서 개방과 정보 공유 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역동적인 모습이 TV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현지 지도 현장에서는 선루프로 상반신을 내밀고 주민들 환호에 호응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있기 전까지 외부 문화는 북한에 꾸준히 유입됐다. 아무리 당국이 단속해도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외부 문화에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을 단속할 새로운 선전 선동 방법이 절실했다.

북한의 선전선동은 체제 선전과 사상 주입은 물론, 대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혁신안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선전선동이 앞으로 더 강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설

백내장 시술비 문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백내장 수술이 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와 진료비 부담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공수정체 시술비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담한 안과 의료 서비스 3,945건 가운데 31.8%가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공수정체 중 비급여 치료 재료인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은 의료 기관별로 차이가 최대 15.2배까지 차이가 났다. 8.5배(33만~280만원),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절반가량에 이르렀다. 백내장 수술 경험자 4명 중 1명은 시술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모르고 있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20.3%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부작용 유형은 빛 번짐 현상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력 저하 29.2%, 눈에 열증 발생 23.3% 순이다.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며 발생하는 안질환이다. 보통 50대 이상 중년층에서부터 발생하며 증상이 생기면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변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질환 치료와 시력 개선을 위해서는 원거리와 근거리는 물론 중간거리 시력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맞지 않는 렌즈가 삽입될 경우 오히려 시야가 부자연스럽고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다.

백내장 수술은 이제 질환 치료 뿐 아니라 시력 개선으로 안경의 불편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병원 선택과 수술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순창 출신 통일운동가 설용수

순창 출신 설용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 회장은 통일교육강의의 달인이다. 그는 통일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강연을 한 횟수만도 2천여 회 정도이다. 1년에 최고 899번을 한 적도 있다.

설 회장의 집에는 "부르던 어디든지 간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설 회장은 아버지 설진홍 씨의 반탁 운동에 뒤를 이어 20대 후반부터 통일교육 운동에 한평생을 매진해 왔다.

부친 설진홍 씨는 일본에서 거금을 벌어들인 이승만 정부에 기여를 한 반공지사사다. 그는 애국 조직인 대한청년단 회장으로 순창군에서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발발했다.

설진홍씨는 인민군에 의해 면사무소 임시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당시 10살인 설 회장은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넣어드리기 위해 매일 유치장으로 향했다. 어느 날 수박을 도시락과 함께 가지고 갔다.

유치장 간수는 '반동새끼'라며 수박을 땅 바닥에 던졌다. 설

회장은 그때부터 '공산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다. 1961년 21살에 고(故) 문선명 총재를 만나면서, 공산주의 이론인 변증법과 유물사관 등을 공부했다.

이후 국제승공연합에서 강사로 선발되어 교육 활동에 매진했다. 중앙연수원 지도과장을 거쳐 연수원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강의를 통해 100만 명을 교육시켰다.

2001년부터 2003년 세계일보 사장 시절 북한을 방문해 통일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 이후에도 북한 실세들과 수시로 만나 남북화해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 그는 6·15 공동선언 실천과 남측 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갈수록 통일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배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많은 통일 단체와 연대에 대한민국이 원하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

설용수 회장이 가진 모든 열정과 신념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 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존 리 당선인과 기념 촬영하는 캐리 램 행정장관



존 리(왼쪽) 홍콩 행정장관 당선인과 캐리 램 행정장관이 9일 홍콩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존 리 전 정무부총리는 8일 치러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러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오데사 소재 호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에 있는 한 호텔이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오데사로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